

[주]창신섬유 웅상공장 준공식 축하연설

멀리서 그리고 가까이서 참석해주신 여러분, 제가 초청한 것은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식회사 창신섬유의 새공장 웅상공장의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름도 들어서 잘 알고 있고,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서 참 좋은기업이다 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받는 느낌은 참 좋은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우리사회에 갈등이나 혼란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꿈과 희망이 살아있는 사회는 건강하고, 꿈과 희망이 흔들리는 사회는 병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꿈과 희망에 대한 자신감이 살아 있고 이웃사람들에게 증명되어 갈 때 그 사회가 보다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보통우리가 산업을 얘기하면서 한때는 중화학공업이 가장 중요해서 그거하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고 안하는 사람은 좀 밀리는 느낌을 받는데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벤처산업이 그렇습니다. 벤처산업하면 으레 디지털산업 그것만 생각하고 전통산업이 기가죽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 풍조가 아니라도 섬유하면 돈 안되는것이라는 느낌갖고 아마 별로 잘 나가지 않는 상태, 많은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 들은 얘기를 생각해보면 벤처가 섬유에도 있구나라고 다시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남들이 안될꺼라 생각하는 분야에서 용기있게 도전하고 남달리 머리를쓰고 땀을흘려서 이런것들이 기업 뿐만아니라 사회전체 큰 꿈과 희망이고 또 자신감을 심어주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공장의 준공식을 축하하면서 강동원회장님, 임직원여러분께 축하와 존경을 전합니다.

또하나는 어려운 가운데 다들 해외로 눈을 돌리기 쉬운 상황에서 국내에서 특히 이 부산에서 기업을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애정에 대해서도 부산사람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하한 마음만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창신이 더욱더 크게 뻗어나가서 부산발전에 그리고 한국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시고 지금까지 한국사회가 성공한 사람들이 좋은 소리 못듣는 사회였는데, 정치하는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별로 좋은 소리 못들었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좋은 소리 못들었던 사회분위기였는데 이처럼 실력으로서 그리고 땀과 노력으로서 성공해가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본인이 성취하고 이웃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이런 기여를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서 성공하는 이런 기업들이 있음으로서 우리사회가 앞으로는 성공한 사람이 존경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하는데 또한 일조해 주실꺼라고 믿습니다.

좀 이상한 얘기지만 제가 노동운동을 거들면서 기업하는 사람들 반대쪽에서 더러 불편을 드리고 싸움도 많이 걸고 했는데, 오늘 새로운 구호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 사회 순리가 통하고 상식이 통하고 그래서 남달리 노력하고 땀흘린 사람들이 성공할수 있는 사회를 만듦으로써 우리 사회가 이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사회풍조를 없앨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당당한 기업활동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부자가 존경받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덩달아서 존경받을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수 있도록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창신섬유의 큰 발전은 더욱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축하를 드리구요, 감사합니다.